

## 한국수어 반의관계 양상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쌍을 대상으로—

이한나\* · 최상배\*\*

### Abstract

**Lee Hanna & Choi Sanghai.** 2016. 9. 30. **Aspects of Antonymous Rel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Using beginning level antonym pairs as the subject.** *Bilingual Research* 64, 187-216.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ntonymous relations in Korean sign languag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educational antonymous pairs in the beginning level of Korean according to chereme of Korean sign language by its distinctive nature. Research shows the antonymous rel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as the following: First, aspects of antonymous relation according to hand shape consist of HX-HY type, which shows only hand shape as contrasting component [man:woman] and of HmX-HmY type, which shows the different aspects in hand shape and movement. Secondly, aspects of antonymous relation according to movement has two forms, MX-MY and MhX-MhY, subdividing into right/left, high/low, before/after, and far/near. Thirdly, aspects of antonymous relation according to location in vocabulary came to show as LX-LY. Fourthly, aspects of orientation and non-manual signal in anonymous relation did not appear in the beginning level of Korean. Lastly, antonymous relation pairs such as words [hometown:foreign land] is not a distinctive pair of chereme but is compound pair in na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help the learners of Korean sign language to use the vocabulary to develop the skills of distinguishing sign language distinction. (**Kongju University**)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한국수어), Antonymous relation(반의관계), Antonym(반의어), Word-pairs(단어쌍), Semantic relation(의미관계), Chereme(수어소)

---

\* 이한나: 제1저자

\*\* 최상배: 교신저자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수어의 반의관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쌍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의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분석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점차 수어연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sup>1)</sup>.

스토키 이전의 수어는 단순한 제스처나 몸짓으로 인식되어 언어적인 규칙이 없는 언어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스토키에 의해 수어는 음운론적 특성을 지닌 언어임이 입증되었다(Stokoe, 1960). 그는 수어의 단어는 수어가 만들어지는 장소, 단어를 만드는 손의 모양, 손의 활동 이 세 가지로 형성되고, 수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음소(phoneme) 대신에 수어소(chere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 수어소는 수형(handshape), 수동(movement), 수위(location), 수향(orientation),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의 5개로 간주된다(Valli, Lucas & Mulrooney, 2005). 이와 같은 수어소는 수어 어휘 형성의 근원이 되고, 의미를 구별 짓는 변별자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수어가 어떻게 의미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휘의 의미관계는 음성언어 교육에서 어휘를 지도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왜냐하면 개별단어들이 지니는 의미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

1) 그동안 ‘수화’와 ‘수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한국수어(이하 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나 외국 문헌에서 ‘수화’로 언급된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속성에 따라 상호 관련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심재기, 조항법, 문금현, 조남호, 노명희, 이선영, 2010). 일반아동의 경우 의미관계 중에서 반의관계 발달은 초등학교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다(Doherty & Perner, 1998). 더구나 반의어는 유의어보다 먼저 습득 되는데 이는 반대의 의미관계 어휘가 유사한 의미의 어휘보다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Charles, Reed & Derryberry, 1994; Doherty & Perner, 1998). 농아동의 경우도 부모가 농인인 경우 수어 반의어 발달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며, 유의관계보다 반의관계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ovogrodsky, Caldwell-Harris, Fish & Hoffmeister, 2014). 이는 학습자가 의미가 유사한 어휘보다 새로운 어휘를 배울 때 더 동기화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Clark, 1978). 이와 같이 반의어는 언어발달 초기에 아동들에게 내재화가 되며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어는 수어소에 의해 이러한 의미관계가 형성된다.

그 동안 수어소에 의한 수어의 의미변화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정옥(2005)는 한국수어의 어형 변화에 의한 의미변화 고찰을 통해 수동, 수위, 수향에 의한 의미변화를 밝혔다. Supalla & Newport(1978)는 미국수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의미변화가 수형, 수위는 같지만 수동의 특성인 방향성, 방식, 횡수의 체계적인 변화로 서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 외 한국수어의 어휘나 의미 관련 연구는 어휘 빈도조사(윤병천, 1996), 어원 연구(장진권, 1996), 부정 표현(양경숙, 2007), 한국수어 분류사 연구(남기현, 2009), 동사 표현과 수 표현 특성(남기현, 원성옥, 허일, 2010), 명사-동사쌍(남기현,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의 반의관계 양상을 밝힌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최상배와 이창원(2015)의 한국수어 수동 연구에서 수동이 반대가 되면서 수어 단어의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로 [밟다:어둡다], [가다:오다]<sup>2)</sup> 등을 일부 밝혀졌고, 이는 음성언어

2) 본 연구에서 한국어 반의어 쌍은 < > 표시하고, 수어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표기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수어의 독특한 가역성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연구된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에서는 수형을 중심으로 반의어 쌍의 형태와 분야, 품사별 빈도, 개념과 실현 특성이 밝혀졌다(현영옥, 이숙기, 조희경, 고인경, 윤병천, 2016). 그러나 각각의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반의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쌍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의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반의관계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농아동에게 제1언어로서의 수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은 물론 청인을 위한 수어교재 제작이나 교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 반의어의 개념과 유형

최호정(2013)은 ‘반의어’란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그 뜻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관계를 지닌 말로, 모든 의미자질이 동일하나 하나의 자질만이 이질적인 관계를 지닌 단어쌍이라고 하였다. 성광수(1986)에 의하면 반의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단어가 동질성과 이질성의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동질성의 조건으로는 두 단어가 동일 어휘 범주에 속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동일 의미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추하다:아름다움>은 의미 영역은 같으나 동일 어휘 범주가 아니므로 반의어라 할 수 없다. 둘째, 이질성의 조건으로는 두 단어가 대조적인 배타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아들:딸>은 ‘자식’이라는 의미 영역 속에서 ‘성’에 대하여 배타적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반의어가 되고 <크다:작다>는 ‘크기’의 정상적인 중간치를 기준으로 어느 한 쪽에 대한 대립을 나타내므로 반

---

는 [ ]로 구분하였다.

의어가 된다.

전수태(1997)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반의어를 검토하여 반의어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상보반의어로 A의 부정이 B가 되고 B의 부정이 A가 되는 관계이다. 상보반의어는 양자 간의 의미관계이므로 이원반의어라 부를 수 있다. 상보반의어는 단순상보어인 <남자:여자>, <죽다:살다>, <맞다:빚나가다>와 종족상보어인 <개인:단체>, <부분:전체>, <단수:복수>로 나뉘었다. 둘째, 관계반의어는 상호 의존적인 두 단어의 쌍이 있어 하나가 전제되지 않고는 다른 하나를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의 반의어이다. 관계반의어는 상관관계 반의어와 역동관계 반의어, 위치관계 반의어로 나눌 수 있다. 상관관계 반의어는 <스승:제자>, <승자:패자>, <사다:팔다>, <주다:받다> 등처럼 서로 상대방을 전제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쌍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동관계 반의어는 주로 동사성을 가진 단어들로서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하여 한 실체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쌍이다. 예로는 <감다:뜨다>, <얼다:녹다>, <뭍다:풀다>, <늘다:줄다> 등이 있다. 위치관계 반의어는 <상:하>, <전:후>, <좌:우>, <남:북> 등의 공간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쌍으로 '수평적, 수직적, 수평·수직적' 기준으로 나뉜다. <오전:오후>, <밤:낮> 등은 시간 위치를 의미하는 단어들의 쌍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의미하는 단어들의 쌍이 반의어가 된다. 셋째 정도반의어는 사물의 분량, 성질 따위를 고저, 장단, 강약, 우열, 대소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부류와 사물을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는 부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단순정도 반의어로 <무겁다:가볍다>, <춥다:덥다>, <크다:작다>, <깊다:얕다> 등이 있다. 후자는 평가정도 반의어로 <좋다:나쁘다>, <기쁘다:슬프다>, <위험하다:안전하다> 등이 있다.

## 2.2. 한국수어의 수어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phoneme)이라 하듯이 수어에서는 수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를 수어소(chereme)라고 한다 (Stokoe, 1960). 현재 한국수어의 수어소는 수형(handshape), 수동(movement), 수위(location), 수향(orientation),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 5개로 분류된다.

첫째, 수형(handshape)은 수어 단어를 구성하는 손의 형상으로 수형은 다른 수어소보다 수어의 의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상배(2012)는 한국수어의 수형소를 69개, 변이형 11개로 분석하였고, 이중 고빈도 출현 수형은 9형, 1형, 주먹형, 지정형, 편손형, 5형, 부리형, 전화형, 6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동(movement)은 수어 단어를 산출할 때 나타나는 손의 움직임으로 수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드러지는 요소이다. 최상배(2015)는 수어는 공간에서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비수지신호로 수어 단어를 표현하는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두 손 모두 수동이 없다면 수어 단어는 생성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수동의 유형을 운동형태, 운동방향, 운동방식 3가지로 구분하여 한국 수어의 수동소를 총 61개로 밝혔다. 운동형태는 직선, 원, 반원, 축 운동, 자유운동으로 구분되며, 운동방향은 상하, 좌우, 전후와 방향이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좌상, 우상, 좌하, 우하, 전상, 전하, 전좌, 전우, 후상, 후하)로 구분하였다. 운동방식은 빠른 운동과 느린 운동과 같은 질적 변화, 동작의 양(반복), 접촉과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하나의 수어 단어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어 당 평균 4.39개의 수동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수위(location)는 수어를 조동할 때 손의 위치로, 위치에 따라 수어에 의미 변화를 준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다르게 공간에서 표현되기 때

문에 수어에서 공간은 문법적 기능과 조음적 기능을 하게 된다(최상배, 2013). 그는 한국수어의 수위소를 46개, 변이형 47개로 분석하였고, 머리 공간, 두 손 관계 공간, 몸통 공간, 팔 공간, 중립 공간 등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수향(orientation)은 수어 단어가 산출될 때 손가락과 손바닥의 기저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수어자의 몸을 향하거나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취하고 여기에 대각선 방향이 결합된다. 최상배와 이한나(2015)는 손바닥 기저방향 우세손 18개, 비우세손 16개, 손가락 기저방향 우세손 15개, 비우세손 14개를 제시하였다. 수어의 구문론에서 수향은 중요한 요소로 수향의 변화에 따라 굴절(inflexion)표현이 가능해져서 수향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 논항이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꾸짚다>의 경우 내가 상대방을 꾸짚는지 상대방이 나를 꾸짚는지에 따라 손바닥 방향과 손가락 방향이 달라진다.

다섯째, 비수지신호(no-manual signal)는 수어를 산출할 때 나타나는 얼굴표정과 머리와 상체의 움직임이다. 최상배와 이창원(2015)은 수어의 이해와 표현에서 비수지신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어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구문 수준에서 문형의 유형과 어순 활용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수신호 없이 비수지신호만으로도 수지 신호에 상응하는 의미와 언어학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입동작(mouth gesture) 비수지신호는 5가지 유형으로 [음] 입동작은 의욕, 엄격, 완곡, 완전의 의미군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수지신호 없이 비수지신호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어로 [거짓말], [알다], [(도무지) 모르다], [못하다], [있다], [없다], [싫다] 등이 있음을 밝혔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그동안 국내의 반의관계 연구는 부정반의어(전수태, 1992),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신희삼, 2014; 이민우, 2012; 조현용, 2000), 반의관계 교수 방법(최호정, 2003), ‘무’ 접두어 반의어 양상(손남익, 2006), 단어에서 속담까지 폭넓은 반의관계 유형 분석(홍윤기, 2009), 맥락적 반의관계 연구(김서형, 2009), 공기관계를 중심으로 한 반의관계(임채훈, 2009) 등이 있다. 이중 이민우(2012)의 연구는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반의어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반의어 목록과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놓아 기존의 자료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어휘선정으로 평가되는 연구이다(신희삼,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우가 선정한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쌍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에서 반의관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민우(2012)는 어휘 연상에서 반의어 쌍이 매우 유용하며 초급단계의 어휘 학습에 반의어를 쌍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가 반의어 쌍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하였다<sup>3)</sup>. 그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용어휘 가운데 1·2·3급,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반의어사전을 통해 기초 반의어 목록을 기초단계와 확장단계로 선정하였다. 초급단계의 반의어 목록으로 명사 반의어 기초(24쌍)·확장(60쌍), 동사 반의어 기초(21쌍)·확장(45쌍), 형용사 반의어 기초(23쌍)·확장(19쌍)을 선정하였다.

3) 이민우(2012)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1단계에 포함된 어휘(국립국어원)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반의어 쌍을 갖는 단어는 1단계 어휘 총 727개 가운데 113개 (15.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 3.1.1. 명사 반의어

#### (1) 기초 24쌍

<흰색:검은색>, <결혼:이혼>, <여동생:남동생>, <여자:남자>, <남편:아내>, <여학생:남학생>, <밤:낮>, <대답:물음>, <도착:출발>, <등산:하산>, <아들:딸>, <속:길>, <위:아래>, <어머니:아버지>, <아침:저녁>, <안:바깥>, <앞:뒤>, <왼쪽:오른쪽>, <오후:오전>, <외국:내국>, <외국인:내국인>, <전:후>, <지하:지상>, <할머니:할아버지>

#### (2) 확장 60쌍

<가운데:가장자리>, <봄:가을>, <걱정:안심>, <건강:허약>, <여름:겨울>, <고기:채소>, <고향:타향>, <학생:교수>, <현실:꿈>, <처음:끝>, <앞:나중>, <날:달>, <남쪽:북쪽>, <작년:내년>, <내일:어제>, <오빠:누나>, <해:달>, <대화:독백>, <도시:시골>, <동물:식물>, <형:동생>, <서쪽:동쪽>, <처음:마지막>, <말:글>, <머리:꼬리>, <몸:정신>, <문제:답>, <물:불>, <위:밑>, <사람:짐승>, <사랑:미움>, <산:들>, <선생:학생>, <설명:기술>, <손:발>, <손가락:발가락>, <주인:손님>, <숟가락:젓가락>, <시간:공간>, <시작:끝>, <아이:어른>, <아저씨:아주머니>, <약:독>, <양복:한복>, <어린이:어른>, <오늘:어제>, <동생:언니>, <엄마:아빠>, <오늘:내일>, <외국어:모국어>, <위험:안전>, <작년:금년>, <오래:잠깐>, <졸업:입학>, <주말:주초>, <지금:옛날>, <대답:질문>, <처음:마지막>, <필요:불필요>, <땅:하늘>

### 3.1.2. 동사 반의어

#### (1) 기초 21쌍

<가다:오다>, <걸어가다:걸어오다>, <결혼하다:이혼하다>, <켜다:끄다>, <나가다:들어오다>, <올라가다:내려가다>, <내려오다:올라오다>, <내리다:

오르다>, <늦다:이르다>, <열다:닫다>, <도착하다:출발하다>, <돌아오다:돌아가다>, <들다:내리다>, <알다:모르다>, <받다:주다>, <입다:벗다>, <사다:팔다>, <살다:죽다>, <안되다:잘되다>, <웃다:울다>, <자다:깨다>

(2) 확장 45쌍

<배우다:가르치다>, <걷다:뛰다>, <시작하다:끝나다>, <시작하다:끝내다>, <들다:나다>, <나오다:나가다>, <날다:기다>, <들이다:내다>, <넣다:빼다>, <일하다:놀다>, <들다:놓다>, <댈다:더럽히다>, <도와주다:방해하다>, <돕다:방해하다>, <받다:드리다>, <말하다:듣다>, <들어가다:나가다>, <떠나다:머무르다>, <마시다:뺏다>, <만나다:헤어지다>, <만들다:없애다>, <먹다:뺏다>, <못하다:잘하다>, <묻다:대답하다>, <사랑하다:미워하다>, <생기다:없어지다>, <서다:앉다>, <계속하다:쉬다>, <벗다:신다>, <좋아하다:싫어하다>, <벗다:쓰다>, <씻다:더럽히다>, <일어나다:자다>, <들다:이야기하다>, <일하다:쉬다>, <언다:읽다>, <읽어버리다:줍다>, <잇다:기억하다>, <기억하다:잊어버리다>, <일어나다:잠자다>, <잡다:놓다>, <쓰다:지우다>, <찾다:감추다>, <내리다:타다>, <죽다:태어나다>

3.1.3. 형용사 반의어

(1) 기초 23쌍

<멀다:가깝다>, <가볍다:무겁다>, <같다:다르다>, <길다:짧다>, <좋다:나쁘다>, <높다:낮다>, <넓다:좁다>, <늦다:이르다>, <달다:쓰다>, <춥다:덥다>, <많다:적다>, <맑다:흐리다>, <어둡다:밝다>, <배고프다:배부르다>, <비싸다:싸다>, <빠르다:느리다>, <어렵다:쉽다>, <슬프다:기쁘다>, <있다:없다>, <유명하다:무명하다>, <크다:작다>, <재미있다:재미없다>, <싱겁다:짜다>

## (2) 확장 19쌍

<고프다:부르다>, <건강하다:허약하다>, <어렵다:괜찮다>, <깨끗하다:더럽다>, <따뜻하다:춥다>, <다르다:똑같다>, <뜨겁다:차갑다>, <맛있다:맛없다>, <낫다:못하다>, <좋다:싫다>, <아름답다:추하다>, <예쁘다:미쁘다>, <위험하다:안전하다>, <조용하다:시끄럽다>, <중요하다:사소하다>, <즐겁다:괴롭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쉽다:힘들다>

## 3.2. 분석절차 및 기준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웹 형식의 ‘한국수어사전’의 수어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색 절차는 첫째, 연구 대상 반의어 쌍을 한국어 표제어로 검색하였다. 둘째, 한국어 표제어로 해당 반의어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한국수어사전에 제시된 ‘동형어’나 ‘반형어’ 정보 또는 해당 단어의 한국어 유의어로 변환하여 재검색 하였다. 셋째, 검색된 수어는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어떤 양상의 반의관계가 형성되는지 분석하여 수어소에 따라 상반되는 반의관계 양상을 분류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수어소를 기준으로 대립되는 특성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는 따로 정리하였다.

수어소에 의한 반의관계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소에 의한 분류는 특정 수형이 다르게 산출되어 반의어 쌍 사이에 의미차이를 두드러지게 할 경우의 어휘가 해당된다. Tennant & Brown(2010)은 수형이 다른 수어소보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남자:여자’의 경우 수형의 차이도 있고, 수향의 차이도 있으나 수형에 의해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수동소에 의한 분류는 최상배와 이창원(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동 유형 중에서 운동방향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심재기(1975)는 반의어의 방향성을  $\uparrow$ ,  $\downarrow$ ,  $\rightarrow$ ,  $\leftarrow$ ,  $\leftrightarrow$  세 가지로 표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대칭적 반의어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어소의 운동방향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상하, 좌우, 전후의 3가지 형태와 양손의 거리 관계에 의한 ‘원근’의 수동을 분류 기본으로 삼았다. 이때 ‘상하’는 수직선의 중앙, ‘좌우’는 수평선의 중앙, ‘전후’는 수어자의 몸체의 일부 지점, ‘원근’은 수평의 중앙을 대칭점으로 분석하였다. 최상배(2015)는 농인이 수화 단어를 지각할 때 수동과 수형은 수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수동은 수화 단어 표현에서 음성언어의 모습과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화 단어 표현에서 수동은 수화 지각과 의미 전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어 단어쌍이 수향이나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향과 수위에서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않고 수동에서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수동의 차이로 인한 반의어 쌍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수위소에 따른 분류는 반의어 쌍 간에 수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상반되는 의미차이가 나타나거나 양손 관계의 위치에서 상반된 차이를 나타낼 때 분류하였다. 넷째, 수향소에 의한 분류는 손바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향한 형태가 반의관계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어휘가 해당된다. 최상배와 이한나(2015)는 한국수어의 수향을 손바닥 기저방향과 손가락 기저방향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손바닥 기저방향에 의한 분류만 기준으로 삼았다. 다섯째, 비수지신호가 반의어 쌍에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여섯째, 수어소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상반되는 반의어 쌍은 따로 분류하고, 분석이 모호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어소에 따른 분류 방법은 첫째, 한국어 반의어 쌍을 한국수어사전에서 검색한 후 어떤 수어소를 주 변별자질로 하는지를 구분하여 반의어 쌍을 ‘X:Y’로 설정하고, 변별자질에 해당하는 수어소의 영어 첫 대문자를 앞에 부여하였다. 이는 전수태(1997)가 반의어의 쌍에서 변하는 형태와

변하지 않는 형태의 두 요소에 주목하여 형태분류 한 것을 적용한 것이다. 즉, 수형(handshape)은 ‘H’, 수동(movement)은 ‘M’, 수위(location)는 ‘L’, 수향(orientation)은 ‘O’,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는 ‘N’으로 수어소의 변별자질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수형만 다른 <남동생:여동생>은 ‘HX-HY’형태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한 가지의 변별 자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다른 수어소의 차이도 상반되게 나타날 경우 수어 형성에 더 기초적인 수어소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부차적인 것을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있다:기억하다> 반의어 쌍은 수형의 시작과 끝이 상반되며, 수동의 방향도 상반되므로 ‘HmX-HmY’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하나의 변별 자질 외에 다른 수어소의 차이가 발생해도 상반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수어소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수형은 수어의 가장 기초적인 수어소이기 때문에 수형이 상반되는 특정 변별자질이 아니어도 두드러지게 차이를 나타낼 경우 소문자를 부여하였다. 넷째, 변별자질은 최대 2개까지만 고려하여 최대한 단순화시키려 했다.

## 4. 한국수어에 나타난 반의어 양상

### 4.1. 수형(Handshape)에 따른 반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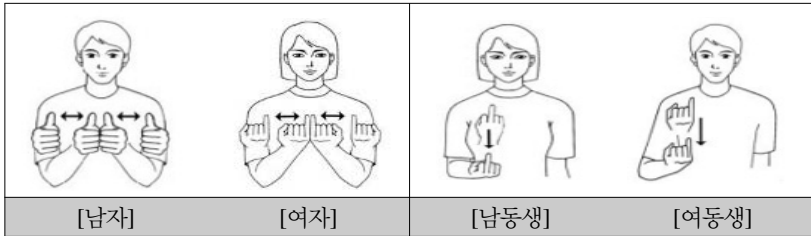
#### 4.1.1. HX-HY형

HX-H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남자:여자], [여동생:남동생] 등의 한국어 명사 반의어 쌍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어에서 [남자]와 [여자]의 수형 차이가 연관된 어휘에 그대로 조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상배(2012)의 연구에서 수형이 최소대립쌍이 되는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예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 표지를 사용하는 단어

쌍에서 증명된 바 있다. HX-H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1)과 같고, <그림 1>과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반의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수형은 최상배(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고빈도 수형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의 초급단계 단어는 주로 ‘남:여’ 성별에 의한 반의어 쌍이었으므로 [남자]를 의미하는 수형인 ‘5형’과 ‘2형검지굽힘형’ 대 [여자]를 의미하는 수형인 ‘여자형’ 수형으로 반의관계를 형성하였다.

(1)

[여자:남자], [여동생:남동생], [남편:아내], [여학생:남학생], [아들:딸],  
 [어머니: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 [오빠:누나], [아주머니:아저씨],  
 [엄마:아빠]



<그림 1> 수형에 따른 반의어 쌍(HX-HY형)

4.1.2. HmX-HmY형

HmX-Hm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켜다:끄다], [배고프다:배부르다] 등의 한국어 동사 및 형용사 반의어 쌍에서 나타났다. 이 두 수어는 시작점의 수형과 끝나는 지점의 수형이 상반되게 산출되며 동시에 수동도 상반되게 산출되었다. HmX-HmY형의 반의어 쌍은 (2)와 같고, <그림 2>와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켜다:끄다]의 경우 켜고, 끄는 대상

이 무엇이나에 따라 수위나 수향의 방향은 변이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HmX-HmY형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9형:주먹형’, ‘9형:만형’의 양상으로 특정 수형이 반의 역할을 하였다. 이 수형은 최상배(2012)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수형이다. 현영옥 외(2016)의 연구에서는 [있다:기억하다]를 오로지 수동의 전환만 이루어진 경우로 수어의 가역성을 설명하여 본 연구와는 관점이 다소 다르게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잡다:놓다]를 수형의 변별자질을 중심으로 수동의 변별자질도 부가하였으나 현영옥 외(2016)에서는 수동에 의한 유사가역의 특성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보인다.

(2)

[켜다:끄다], [있다:기억하다], [기억하다:잊어버리다],

[잡다:놓다(놓아주다)<sup>4)</sup>], [배고프다:배부르다], [고프다:부르다]



<그림 2> 수형에 따른 반의어 쌍(HmX-HmY형)

4) ()어휘는 한국수어사전에 [] 표제어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변환하여 검색한 어휘이다.

## 4.2. 수동(Movement)에 따른 반의어 양상

### 4.2.1. MX-MY형

MX-M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좌우, 상하, 전후, 원근으로 수동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좌우에 의한 반의어 쌍은 [오전:오후], 상하에 의한 반의어 쌍은 [형:(남)동생], [등산하다:하산하다] 등이 있었다. 전후에 의한 반의어 쌍은 [작년:내년], [받다:주다] 등이 있었고, 원근에 의한 반의어 쌍은 [결혼:이혼], [열다:닫다], [길다:짧다] 등이 있었다. MX-MY형의 반의어 쌍은 (3)~(6)과 같고, <그림 3>과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수동에 의한 반의어 쌍은 한국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두루 나타났다.

운동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상하, 원근, 전후, 좌우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수동에 의한 변별자질은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수동에 의한 반의어 쌍에서 [받다:주다]의 경우는 ‘전후’ 운동 양상으로 나타나고, [받다:드리다]는 ‘전후’ 운동 양상보다 ‘상하’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며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이는 수어가 조어되는 방향에 따라 반의어가 형성되면서 높임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쪽:동쪽]의 경우 손바닥 방향인 수향도 ‘전’방향과 ‘후’방향으로 상반되는 특성이 있으나 반의어 쌍의 어원이 해가 지고 뜨는 형상을 상·하운동으로 형상화 한 것이므로 수동의 자질만 부여하였다. 셋째, [벗다:신다]의 경우 벗고 신는 사물이 무엇이나에 따라 수동의 양상은 다양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사전에서 나타난 상하 운동의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어제:내일]의 반의어 쌍은 수어자의 몸을 기준으로 앞쪽은 미래시제, 뒤쪽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어의 시제 양상에 따라 ‘전후’ 이동을 한 반의어 쌍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현영옥 외(2016)에서는 수위를 유지하면 수형이나 수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동이 대칭을



실현하면서 의미 대립이 있는 [지난주:다음주]같은 반의어 쌍을 ‘유사대칭’으로 명명하였다. 다섯째, [들다:나다]의 반의어 쌍은 사전에 표제어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드나들다]의 수어가 검색되며 합성어로서 두 개의 어근이 상반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반의관계 양상에서는 수동에 의한 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어에서는 수동소에 의한 최소대립쌍 단어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최상배, 2015)는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Battison(1987)은 두 손 수화에서 두 손의 수형과 수동이 같은 경우 수동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운동은 평형이거나 반대운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수어 반의관계 양상에서 양손의 ‘원근’ 운동이 그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3) 좌우

[오전:오후]

### (4) 상하

[하산:등산], [위:아래], [형:동생], [언니:동생], [동쪽:서쪽], [위:밑],  
[올라가다:내려가다], [내리다:오르다], [들다:내리다], [들다:놓다],  
[벗다:쓰다], [받다:드리다], [벗다:신다], [내리다:타다], [가볍다:무겁다],  
[비싸다:싸다]

### (5) 전후

[전:후], [작년:내년], [내일:어제], [받다:주다], [들다:나다(드나들다)],  
[잘하다:(잘)못하다], [멀다:가깝다]

### (6) 원근

[결혼:이혼], [밤:낮], [결혼하다:이혼하다], [열다:닫다], [벗다:입다],  
[길다:짧다], [넓다:좁다], [어둡다:밝다]

[오전]	[오후]	[등산하다]	[하산하다]
좌우 상반 운동		상하 상반 운동	
[작년]	[내년]	[결혼]	[이혼]
전후 상반 운동		원근 상반 운동	

<그림 3> 수동에 따른 반의어 쌍(MX-MY형)

#### 4.2.2. MhX-MhY형

MhX-Mh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수동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동시에 수형의 차이는 발생하나 수형 자체에 상반되는 특정 의미 자질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반의어 쌍이다. 좌우에 의한 반의어 쌍은 나타나지 않았고, 상하에 의한 반의어 쌍은 [처음:마지막], 전후에 의한 반의어 쌍은 [나가다:드어오다] 등이 있었고, 원근에 의한 반의어 쌍은 [만나다:헤어지다]가 있었다. MhX-MhY형의 반의어 쌍은 (7)~(9)와 같고, <그림 4>와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반의어 쌍은 한국어 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두루 나타났고, 운동방향에 따라서 전후, 상하, 원근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여기에서 [넣다:빼다]는 넣고 빼는 공간이나 사물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가능하며 수동의 양상도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속에 집어넣는 동작’에 해당하는 반의 수어 양상으로 [빼다]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꺼내다]의 수어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시작하다]의 한국어 동사는 수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시작]의 형태만 등록되어 있었다. 반면 [끝나다], [끝내다]는 등록이 되어 있고, [끝내다]의 수어는 [끝나다]의 수어가 마지막에 위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끝나고 비수지신호에서 ‘완료’의 의미가 산출되고 있다. 현영옥 외(2016)에서는 [전:후]는 ‘대칭’, [지상:지하]와 같은 반의어 쌍은 ‘부분 대칭’으로 분류하였다.

### (7)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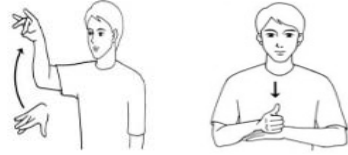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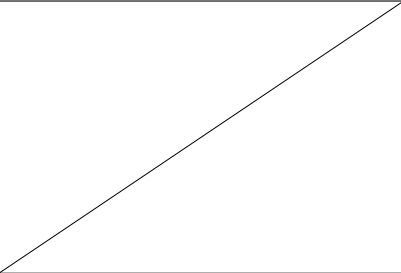
[앞:뒤], [건강:허약], [주말:주초], [처음:마지막(끝)], [지하:지상],  
[넣다:빼다(꺼내다)], [건강하다:허약하다(허약)], [높다:낮다]

### (8) 전후

[대답:질문], [가다(달려가다):오다], [돌아오다:돌아가다],  
[나가다(뛰어나가다):들어오다], [묻다:대답하다]

### (9) 원근

[도착:출발], [시작:끝], [도착하다:출발하다], [만나다:헤어지다],  
[시작하다(시작):끝나다], [시작하다(시작):끝내다]

			
[처음]	[마지막]	[나가다]	[들어오다]
상하 상반 운동		전후 상반 운동	
			
[만나다]	[헤어지다]		
원근 상반 운동			

<그림 4> 수동에 따른 반의어 쌍(MhX-MhY형)

### 4.3. 수위(Location)에 따른 반의어 양상

#### 4.3.1. LX-LY형

LX-LY형의 수어 반의어 쌍은 [왼쪽:오른쪽], [속:겉] 등에서 나타났다. 수위에 의한 반의어 쌍의 특징은 우세손과 비우세손이 동시에 출현하며 비우세손을 기준으로 우세손이 수어의 위치를 산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LX-LY형의 반의어 쌍은 (10)과 같고, <그림 5>와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현영옥 외(2016)에서는 [왼쪽:오른쪽]을 수위에 초점을 둔 ‘대칭’이라고 분석하였다.

(10)

[속:겉], [안:바깥], [왼쪽:오른쪽]



<그림 5> 수위에 따른 반의어 쌍(LX-LY형)

#### 4.4. 수향(Orientation)에 따른 반의어 양상

##### 4.4.1. OX-OY형

한국수어에서 수향만으로 반의어가 변별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상배(2015)는 수어는 공간에서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비수지신호로 수어 단어를 표현하는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두 손 모두 수동이 없다면 수어 단어가 생성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향만으로 반의관계 양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5.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에 따른 반의어 양상

##### 4.5.1 NX-NY형

본 연구 대상의 한국어 반의어 쌍에서는 비수지신호만으로 수어의 반의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는 초급단계 단어의 반의관계 양상을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다:싫다>의 반의어 쌍은 [기분이 좋다:기분이 나

쁘다]의 형태로 확장될 때 비수지신호만으로 반의관계가 형성되는 어휘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최상배, 이창원, 2015). 따라서 한국어 중·고급의 반의어 쌍으로 수어의 반의관계 양상을 분석하면 이러한 형태는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기분 좋다(좌):기분 나쁘다(우), 최상배와 이창원 2015, p.364

#### 4.6. 복합어 형성에 의한 반의어 양상

수어의 반의어 양상의 대칭성은 대부분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산출되었으나, 수어소의 대칭성이 아닌 복합어 구조의 반의관계 양상도 일부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고향:타향>의 반의어쌍은 수어에서 [고향]은 [태어나다]+[곳], [타향]은 [태어나다]+[다르다]+[곳]으로 나타났다. <맛있다:맛없다>의 반의어 쌍에서 [맛없다]는 [맛있다]+[털어 버리는 동작]으로 나타났다. <필요:불필요>, <필요하다:불필요하다>의 반의어 쌍에서 [불필요(하다)]는 [필요]+[물리는 동작]으로 나타났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의 반의어 쌍은 [불친절하다]는 [친절하다]+[없다]로 나타났다. 복합어 형성에 의한 반의어 쌍은 (11)과 같고, <그림 7>과 같은 반의어 쌍이 대표적이다. 현영옥 외(2016)에서는 [털어버리는 동작]을 ‘뿌리치기’로 기술하였고, [없다] 수어가 합성되는 형태를 ‘부정’ 반의어 쌍으로 분류하였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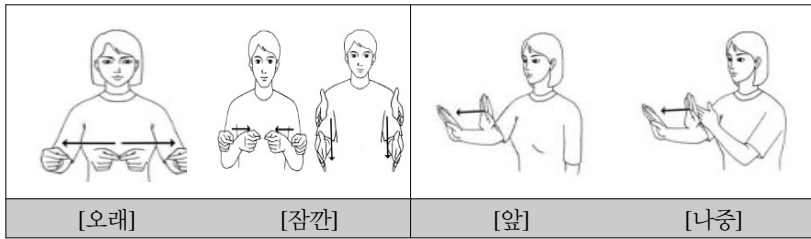
[고향:타향], [필요:불필요], [맛있다:맛없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고향]	[타향]
	
[필요]	[불필요]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림 7> 복합어 형성에 의한 반의어 쌍

앞에서 언급된 반의어 쌍 외에 [오래:잠깐]의 반의어 쌍은 MX-MY형으로 수동소의 원근에 의해 반의어 쌍이 나타나면서 [동안]이라는 어근이 합성된 복합적 반의어 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나중>의 수어는 한국어에서는 반의어 쌍으로 존재하지만 수어에서는 동형어로 검색이 된다. 이를 의미상으로 수어를 검색할 경우 [앞:뒤]의 수어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간 반의어 쌍의 불일치에 대해 전수태(1997)는 반의어 쌍의 특성이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에는 <알다:모르다>, <있다:없다>가 존재하나, 영어에서는 <know:not know>, <is:is not>으로 부정형식이 된다. 해당하는 수어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기타 형태의 반의어 쌍

#### 4.7. 언어구성 요소로 본 한국수어 반의어 양상

##### 4.7.1. 수어소에 따른 반의어 쌍 비율

수어소에 따른 반의어 쌍의 비율은 수동이 51개(66.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형이 16개(20.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동과 수형이 수어의 반의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변별자질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어소에 따른 수어 반의어 쌍 비율

	수형	수동	수위	수향	비수지신호	복합어	기타	계
개수	16	51	3	-	-	5	2	77
비율 (%)	20.78	66.23	3.9	-	-	6.49	2.60	100

##### 4.7.2. 품사에 따른 반의어 쌍 비율

수어소에 따른 반의어 쌍 양상을 한국어 품사별로 비교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고, 이는 현영옥 외(2016)연구와 같은 결과



이다. 또한 기초 어휘가 확장 어휘보다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더 기초적인 수어에서 수어소의 상반되는 특성의 반의어 쌍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품사에 따른 수어 반의어 쌍 비율

	명사		동사		형용사	
	기초	확장	기초	확장	기초	확장
수어 반의어 쌍/ 전체 반의어 쌍	19/24	19/60	12/21	15/45	8/23	4/19
비율(%)	79.17	31.67	57.14	33.33	34.78	21.05

#### 4.7.3. 형태론적 수준에서 나타난 반의어 쌍

형태론적 수준에서의 반의어 쌍이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반의어 양상은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서 중급이나 고급의 어휘에서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반의어는 한자를 접두사나 접미사로 하는 반의어 쌍이 중·고급 어휘로 갈수록 더 많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영옥 외(2016)의 연구에서도 한자접두사가 붙은 [죄:무죄], [의미:무의미], [평등:불평등] 등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형태론적 수준에 나타난 반의어 쌍

양상	명사	동사	형용사
파생어 형	필요:불필요	-	맛있다:맛없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합성어 형	고향:타향 오래:잠깐	-	친절하다:불친절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수어의 반의관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쌍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의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어의 반의관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소에 의한 반의관계 양상은 [남자:여자], [남동생:여동생]처럼 수형만을 상반되는 요소로 분류한 HX-HY형과, [꺼다:끄다]처럼 수동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 HmX-HmY형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둘째, 수동소에 의한 반의관계 양상은 수동의 방향만을 변별자질로 MX-MY형을 제시하였고, ‘좌우’, ‘상하’, ‘전후’, ‘원근’으로 나타났다. 좌우에 의한 반의어 쌍은 [오전:오후], 상하에 의한 반의어 쌍은 [형:(남)동생], [등산하다:하산하다] 등이 있었다. 전후에 의한 반의어 쌍은 [작년:내년], [반다:주다] 등이 있었고, 원근에 의한 반의어 쌍은 [결혼:이혼], [열다:닫다], [길다:짧다] 등이 있었다. 또한 수형까지 상반되는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형이 두드러지게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MhX-MhY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양상에서는 좌우에 의한 반의어 쌍은 나타나지 않았고, 상하에 의한 반의어 쌍은 [처음:마지막], 전후에 의한 반의어 쌍은 [나가다:들어오다] 등이 있었고, 원근에 의한 반의어 쌍은 [만나다:헤어지다]가 있었다.

셋째, 수위에 의한 반의어 양상으로 LX-LY형을 제시하였다. 이런 양상은 [왼쪽:오른쪽], [속:겉] 등에서 나타났다. 수위에 의한 반의어 쌍의 특징은 우세손과 비우세손이 동시에 출현하며 비우세손을 기준으로 우세손이 수어의 위치를 산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수향에 의한 반의어 쌍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어 단어는 공간에서 움직임의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단지 수향만으로 반의관계 양상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비수지신호에 의한 반의양상은 한국어 초급단계 교육용 어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수어소의 변별자질이 아닌 복합어 형태의 반의어 쌍도 나타났다. <고향:타향>의 반의어 쌍에서 <고향>은 [태어나다]+[곳], <타향>은 [태어나다]+[다르다]+[곳]으로 나타나 [다르다]라는 단어가 중간에 첨가된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맛있다:맛없다>에서 [맛없다]는 [맛있다]+[털어 버리는 동작]으로 단어가 아닌 접사가 뒤에 첨가된 형태로 나타났다.

일곱째, 수어소에 따른 변별자질은 수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품사에서는 명사 반의어 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확장어휘보다 기초 어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수어 초기 학습자 중에는 수화소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 청각장애 학교 교사 역시 수업 언어로 수화언어를 사용할 때 수화소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최상배, 2011). 따라서 수어소를 변별자질로 의미관계가 달라지는 반의어는 수어교육의 초기에 학습자들의 수어 변별력을 향상시키는 어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웹으로 제공되는 한국수어사전에 나타난 수어를 분석한 것으로 실제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는 일치하지 않는 수어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초급단계 어휘를 대상으로 반의어 양상을 비교한 것이므로 중·고급의 어휘에 대한 반의어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각 수어소의 세부적인 자질을 고려하여 더 심층적인 의미관계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서형(2013). 맥락적 반의관계 어휘의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제52호, 2쪽-24쪽.  
 남기현, 원성욱, 허일(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연구> 17권 1호, 157쪽-178쪽.

- 남기현(2015). 한국수화의 명사-동사쌍 연구, <언어정보> 20권. 43쪽-74쪽.
- 남기현(2009). 한국수어 동사 분류사 연구, <언어연구> 23권. 707쪽-730쪽.
- 성광수(1986). 동의성과 반의성의 한계, <고려대 사대 논집>, 1권.
- 신희삼(2014). 반의어를 이용한 한국어어휘교육 방안, <언어학> 22권 4호. 297쪽-316쪽.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135쪽-149쪽.
- 심재기, 조항범, 문금현, 조남호, 노명희, 이선영(2010). 국어어휘론개설. 지식과 교양.
- 손남익(2006).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한국어의미학> 19권. 65쪽-83쪽.
- 양경숙(2007). 한국 수화의 부정 표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윤병천(1996). 한국 청각장애인의 사용 수화 어휘 빈도 조사, <수화연구> 1집. 19쪽-34쪽.
- 이민우(2012).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9호. 119쪽-242쪽.
- 이정옥(2005). 한국 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 나남.
- 이한나. 최상배(2016). 청각장애학교 농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어휘·문법 결과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권 4호, 1쪽-19쪽.
- 임채훈(2009). 반의관계와 문장어미 형성: 형용사, 동사 반의관계 어휘의 공기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0권. 231쪽-256쪽.
- 장진권(1996). 한국 수화의 어원적 의미, <수화연구> 1권. 51쪽-62쪽.
- 전수태(1997). 국어 반의어의 의미 관계. 박이정.
- 조현용(2003).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 최상배(2012).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권 1호. 233쪽-256쪽.
- 최상배(2013). 한국수화언어의 수위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권 2호. 1쪽-20쪽.
- 최상배, 이창원(2015). 한국수화언어 수동 유형과 특징,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권 1호. 219쪽-236쪽.
- 최상배, 이창원(2015). 한국수어 단어 수준 비수지번호 분석, 건지인문학 13권 0호, 355쪽-373쪽.
- 최상배, 이한나(2015). 한국수화언어 수향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권 2호. 391쪽-408쪽.
- 최호정(2013). 한국어 반의어 교육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현영옥, 이숙기, 조희경, 고인경, 윤병천(2016).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 <제18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23쪽-145쪽.
- 홍윤기(2009). 문장에서의 반의관계 실현 방식 연구, <한국어교육> 20권 23호, 185쪽-204쪽.
- Battison. R. (1978). *Analyzing signs: In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 Linstok Press. 19-58.
- Charles, W. G, Reed, M. A, & Derryberry, D. (1994). Conceptual and associative processing of antonymy and synonymy. <Applied Psycholinguistics> 15. 331-356.
- Clark, E. V. (1972). On the child's acquisition of antonyms in two semantic field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 750-758.
- Doherty, M., & Perner, J.(1998).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theory of mind: Just two words for the same thing? <Cognitive Development> 13. 279-305.
- Novogrodsky, R., Caldwell-Harris, C., Fish, S., Hoffmeister, R.J. (2014). The Development of Antonym Knowledge in American Sign Language (ASL) and Its Relationship to Reading Comprehens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Research Club> 64(4). 749-770.
- Stokoe, W.(1960). *Sign Language Structure: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Linstok Press.
- Supalla, T., Newport, E.(1978). How many sit in a chair? The Derivation of Nouns and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P. Siple (Ed.),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 91-132. Academic Press.
- Tennant, R. A., Brown, M. G. (2010). *The American Sign Language Handshape Dictionary*. Gallaudet University Press
- Valli, C., Lucas, C., & Mulrooney, K. J. (2005).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An Introducti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2016.07.18.

이한나(Lee hanna)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신관동)  
전화번호: 041-850-8208  
전자우편: positivese@hanmail.net

최상배(Choi Sangbae)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신관동)  
전화번호: 041-850-8208  
전자우편: sbchoi@kongju.ac.kr

216 이증언어학 제64호(2016)

접수일자: 2016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9월 13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19일